

## 18세기에 축조된 한양도성 치성의 형식과 위치

## Form and Location of Chiseong(square-shaped lookout) Constructed in Hanyangdoseong(Seoul city wall) of the 18th Century

김 영 수

Kim, Young Soo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송 인 호\*

Song, In Ho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bout the construction of Chiseong around the Heunginjimun Gate area in the 18th century. the conclusions derived from the historical evidence of the number, location, size, and form, and construction method of Chiseong was as follows. First, the Chiseong(Square-shaped lookout) of Hanyangdoseong was built in the 29th year of King Yeongjo(1753) and can be found in the national record. Five sites of the Chiseong are currently identified. It is assumed that the Foru was installed on top of some of the Chiseongs. Second, Chiseong was destroyed sequentially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ird, Chiseong is a rectangular in shape and six are constructed. Fourth, Sixth Chiseong could figure out through Hengryeopungsokdo, the drawing of Jeong Seon.

주제어 : 한양도성, 치성, 정선, 행려풍속도

Keywords : Hanyangdoseong(Seoul city wall), Chiseong(Square-shaped lookout), Jeong Seon, Hengryeopungsokdo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양도성의 동쪽 흥인지문 일대의 평지구간은 웅성, 치성, 수문(오간수문과 이간수문) 등 주요 성곽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그러나 18세기 흥인지문 일대의 성곽은 크게 변화한다. 영조대(1724-1776) 새롭게 방어목적의 치성이 건설되었는데 치성은 한양도성의 기능과 성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성곽시설이다. 특히 흥인지문부터 광희문에 이르는 지역은 1745년 이후 삼군영 중 어영청이 한양도성을 분계(分界)하여 담당했던 구간으로 18세기 한양도성의 주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한양도성의 동쪽은 지형이 낮고 평평한 습지(흥인지문은 해발고도 약20~25m)로 방어측면에서 다른 지역(백악산 342.5m, 낙산 124.4m, 목격산 270.1m,

인왕산 339.9m)에 비해 취약했다. 이러한 지형적 취약점으로 인해 양난(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성곽을 보강하려는 논의가 지속되다가 18세기 흥인지문 일대에 치성을 건설하여 군사적 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따라서 치성의 축조는 조선후기 한양도성의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치성은 성곽으로부터 외부로 돌출된 구조물로서 적을 관측하여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성곽시설이다. 현재 흥인지문 남쪽으로 치성 1개소(흥인지문으로부터 3번째 치성)가 발굴되어 복원(2009)되어 있으며 관련 보고서<sup>1)</sup>를 통해 치성 5개가 확인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양도성에 건설된 5개의 치성의 개수와 위치, 규모, 축성술의 일부가 규명되었다. 그러나 옛 국가기록(조선왕조실록과 승정

1)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 서울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2012),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보고서(2016), 도성발굴의 기록 I,II(201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울성곽정비복원공사보고서(2010)

\* Corresponding Author : inos@uos.ac.kr

원일기)에는 치성 6개를 건설하였다고 기록하고 남아 있다. 영조대 흥인지문과 광희문 사이에 6개의 치성을 건설했다는 기록이 영조 29년(1753) 2월과 6월 승정원 일기 기사 등에서 발견된다.<표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문헌기록 외에 실제로 몇 개의 치성이 건설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고증되지 못했다. 20세기 이후 근대지도<sup>2)</sup>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치성의 위치와 개수는 5개이며 그 위치도 영조가 하명한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치성의 개수와 위치를 옛 지도, 근대사진, 발굴자료를 통해 고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흥인지문 일대 치성의 물리적 변화를 문헌자료와 실증자료(발굴과 현장답사)를 통해 고증하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흥인지문부터 광희문 주변(장충동)까지 이어지는 한양도성 복원 및 멸실(滅失)구간이다. 이를 통해 한양도성 본래의 모습을 고증하여 원형의 도상을 복원하고 한양도성의 완전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양난이후 한양도성의 성격이 수도의 상징과 경계의 기능으로부터 군사적 기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입증하는 시설로서 치성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흥인지문에서 남산(목멱)기슭에 이르는 평지 및 낮은 구릉지역은 방어측면에서 취약하여 16세기 이후 치성 건설의 논의가 지속되었다. 현재 확인된 5개의 치성은 흥인지문과 광희문 구간에 대한 군사적 보강만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희문 남쪽 장충동 지역 역시 낮은 구릉지역으로 군사적으로 보완이 필요했고 문헌자료(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도 이 광활한 지역에 대한 치성의 건설 논의가 언급되고 있다. 장충동지역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6번째 치성은 한양도성의 취약점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여영정의 주도하에 본래 계획(광희문 북쪽에 치성 6개를 건설)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치성의 설치 위치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당시 삼군영의 역할과 한양도성에 대한 경영의 유연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 1.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한양도성 치성에 대한 연구는 민덕식(2011)<sup>3)</sup>, 서울성곽 증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건립부지 내 발굴조사(2009), 오간수문 복원방안(2006)<sup>4)</sup> 등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치성을 군

사기능을 갖는 시설로서 문헌 및 발굴 유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민덕식(2011)은 한양도성 치성이 6기 건설되었음을 문헌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지적도와 근대사진(조지로스, 카를로 로세티<sup>5)</sup>), 동대문운동장 발굴을 통해 드러난 3번째 치성을 기준으로 3째 치성과 광희문 사이에 나머지 3개의 치성이 있었다고 제시하고 있다.<sup>6)</sup> 2009년 서울성곽 증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는 흥인지문과 광희문 사이 4개의 치성이 위치하고 광희문 남쪽에 1개의 치성이 있었음을 지적원도와 지형도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양도성 관련 국가기록(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발굴자료, 근대사진, 옛 회화그림, 논문 등을 이용하여 흥인지문과 광희문 일대의 치성 개수, 위치 등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6번째 치성의 형식과 위치를 고증하기 위해 김홍도의 행려풍속도(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를 분석하였다.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는 근경, 중경, 원경의 구도로 시대적 현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서 당시 공간과 시설물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국가기록(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을 바탕으로 치성관련 축성기록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도자료(도성대지도, 한성부지적원도, 창선방도, 조선지형도집성 등)와 근대사진을 활용하여 치성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셋째, 발굴자료(동대문운동장 발굴)와 주택개발계획 등을 분석하여 치성의 훼손과정, 형태 및 규모, 축성술을 살펴보았다.

넷째, 회화자료(수문상친림관역도, 행려풍속도)를 분석하여 6번째 치성의 위치를 고증하였다.

## 2. 영조대 치성의 축성기록

### 2.1 치성의 축성계획

18세기 영조는 한양도성의 흥인지문 남쪽에 치성을 축성하였다. 조선시대 국가기록에는 치성건설과 관련

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 내 발굴조사, 중원문화재연구원/서울시, 2006, 오간수문 복원방안, 한국건축문화연구소

5) 조지로스, 2004,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교보문고, 호한계단/ 카를로 로세티(1902-03), 서울역사박물관

6) 영조 29년 2월에서 6월 사이에는 지형이 낮고, 성벽이 비교적 곧게 뻗은 흥인지문 남쪽에서 광희문 북쪽 사이에 6기의 雉城을 설치하였다. 洪鳳漢은 御營廳의 財力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4기를 계획하였으나, 확대되어 6기가 축조된 것이다. 민덕식의 논문 p35. 민덕식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4번째 치성의 위치까지 밝히고 있다.

2) 조선지형도집성(1921)

3) 민덕식, 새로 발굴된 서울성곽의 부대시설-치성과 이간수문을 중심으로, 2011, 서울역사편찬원, 향토서울 Vol.-No.78

4) 서울시, 2009, 서울성곽 증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한국건축문화연구원·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학연구소/ 서울시, 2009, 동대문 디

된 기록<sup>7)</sup>이 상세하게 남아있는데 이를 통해 치성건설을 위한 왕과 대신들의 논의, 치성의 축조연대, 치성의 개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치성공사에 앞서 구체적인 축조논의<sup>8)</sup>가 영조 28년에 있었다. 영조 28년(1752)의 기사에는 영조가 대신들과 치성을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한 내용<sup>9)</sup>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때 영조는 치성의 설치 개수를 결정한다. 본래 광희문과 흥인지문 사이에 치성 4개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우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5개를 설치하기로 한다. 치성 5개의 설치와 관련된 주목할 기록은 영조 28년(1752년 12월 3일) 승정원일기이다.

“영조가 극수재(絃緩齋)에서 대신 등을 인견할 때 영조는 영성(靈城), 훈장(訓將), 어장(御將), 총융사(摠戎使)가 치성(雉城)을 쌓을 곳을 간심(看審)하고 왔으면 각각 소견들을 말하라고 하자, 어영대장 홍봉한(洪鳳漢)은 광희문 북쪽에서 흥인지문 남쪽까지 4곳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중략) 영조가 광희문 이남은 왜 치를 설치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문수는 이곳은 성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영조는 1기의 치를 별설(別設)하면 어떠하냐고 하였다. 또 김상로는 어장(御將)이 아될 때 재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므로 넓게 시작하는 계획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또 영조는 광희문과 흥인지문 사이에 몇 기의 치를 설치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홍봉한은 신의 생각으로는 4기의 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하였다. 김상로는 비록 도형(圖形)을 가지고 말하자면 사이를 활원(闊遠)<sup>10)</sup>하게 할 수는 없으니 5기의 치가 마땅할 것 같다고 하자, 영조는 5기의 치로서 결정하라고 하였다.”<sup>11)</sup> 이어서 두 번째로 영조 29년(1753)에 치성 축조

에 대해 다시 논의<sup>12)</sup>하였다. 영조 29년의 기사에는 건륭 17년(1752)년 송헌궁에 거둥하였다가 건륭 18년(1753) 환궁하면서 흥인지문에 들러 치성의 증축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는 치성 설치 간격을 1백 30보로 정하고 치성의 설치 개수에 대해 예조 판서 홍봉한에게 다시 하문하였는데 치성을 6개로 늘릴 것을 건의 받고 최종적으로 치성의 개수를 6개로 결정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1753년에 치성건설의 계획이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다.

## 2.2 치성 건설의 공사기록

치성건설에 대한 공사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남아있다<sup>13)</sup>. 1753년 2월 25일 어영청이 올린 문서에는 동성(흥인지문)밖 치성 여섯 곳에 금월(2월) 28일 군역을 시작하여 본천별장 정운상(田雲祥)이 도청(都廳)<sup>14)</sup>으로 하여금 공역을 감독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15)</sup>. 또 다른 공사기록은 1753년 6월 1일 어영청이 치성(雉城) 여섯 곳에서 여장보수공사를 마쳤다는 내용이다. “육처치성여장(六處雉城女牆)의 보수공사를 마쳤다는 어영청(御營廳)의 초기(草記)<sup>16)</sup>”

이 같은 기록을 볼 때 영조 29년(1753) 2월 13일 치성의 설치 개수에 대한 논의 이후 실제 6개의 치성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치성의

###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의 내용

12) 『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2월 13일 기해 6번째 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환궁할 때 흥인지문에 들어서 치성을 증축해야 될 곳에 홍기를 세우라고 명하다.

환궁할 때 흥인지문(興仁門)에 들어서 치성(雉城)을 마땅히 증축해야 될 곳에 홍기(紅旗)를 세워놓으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한 개의 치장(雉牆) 사이는 1백 30보(步)를 기준으로 하라.”하고, 성(城) 가까이 있는 근전(芹田)에 물을 가득 대놓는 것은 성지(城址)를 해치게 된다는 것으로 근전을 다 메우라고 명하였다. 예조 판서 홍봉한(洪鳳漢)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동문(東門)에는 마땅히 몇 개의 치장을 만들어야 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광희문(光熙門) 이북은 여섯 개의 치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였다. 출처: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3) 승정원일기 1095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 6월 1일 을유 23/29 기사 1753년 乾隆(淸/高宗) 18년. 출처: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4) 도청은 조선 초기 토목공사를 위하여 선공감(繕工監)에 설치한 임시 관청이다. 출처: 한국민족백과사전, 한국고전종합DB

15) 승정원일기 1091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 2월 25일 신해 15/24 기사嚴瑀, 以御營廳言啓曰, 本廳分授東城外雉城六處, 今月二十八日始役, 而本廳別將田雲祥, 都廳差下, 使之監董之意, 敢啓。傳曰, 知道。 출처: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6) 具允明, 以御營廳言達曰, 六處雉城女牆, 今已畢築之意, 敢達。令曰, 知道。 출처: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초기(草記)는 조선시대 각 관서에서 왕에게 올리는 문서를 말할

7) 치성의 축조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일부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축성의 논의와 설치위치, 개수 등은 일치한다. 민덕식(2011)은 치성과 관련된 내용을 승정원일기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민덕식 앞의 논문, p11-15 참조

8) 민덕식(2011)은 “치성건설에 대한 논의에 대해 영조 19년에도 치성의 축조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영조 23년 4월에도 축조논의가 있었으나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다. 23년의 축조논의는 영조 21년에서 22년 사이의 도성 수축공사에 이어 제기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민덕식 앞의 논문 p10 인용

9) 『영조실록 78권』, 영조 28년 12월 3일 기축 1번째 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대신들과 성을 축조하는 일을 의논하다 “치성(雉城)에 대한 그림을 열람하셨습니까? 광희문 북쪽으로부터 흥인지문 남쪽까지 치성 네 군데를 만들도록 정하였습니다.” 하매, 우의정 김상로가 말하기를, “그 간격이 넓고 멀으니 의당 다섯 군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섯 군데에 치성을 만들기로 정하라.” 하였다. 출처: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0) 활원(闊遠)의 뜻은“아득히 멀다.”라는 의미이다.

11) 영조 28년(1752) 12월3일 기사. 민덕식, 앞의 논문 p12 재인용,

## 22 논문

개수는 5개이다. 그리고 실제 치성의 설치 위치와 문헌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조선시대 국가기록문서(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만으로 치성의 위치와 개수를 정확하게 고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1. 치성과 관련된 국가기록

연도	내용	기록
1752년 (영조28년 11월29일)	제조 박문수가 영조에게 어영대장으로 하여금 치성건설을 위임할 것을 건의	조선왕조실록
1752년 (영조28년 12월3일)	대신들과 치성을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 -본래 4개로 계획했던 치성의 개수를 5개 설치하기로 함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1753년 (영조29년 2월13일)	환궁하면서 흥인지문에 들러 치성의 증축에 대하여 논의함 -치성의 개수를 6개로 늘림 -치성의 배치 간격을 130보로 하명	조선왕조실록
1753년 (영조29년 2월25일)	1753년 2월28일 치성 6개의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내용	승정원일기
1753년 (영조29년 2월30일)	치성 6개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내용	승정원일기
1753년 (영조29년 4월9일)	영조가 환궁하면서 동성(東城)에 들러 치성 건설에 참여하는 역부(役夫)들에게 술을 내리도록 명하는 내용	조선왕조실록
1753년 (영조29년 6월1일)	1753년 6월1일 치성 6개의 여장공사를 마쳤다는 내용	승정원일기

\*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민덕식 논문, 오간수문 복원방안 연구 참고 재정리

2009년 발굴기록(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 내 발굴조사)과 근대지도(조선지형도집성, 1921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치성의 개수와 위치는 영조가 치성건설의 위치로 하명한 광희문 북쪽이 아니라 광희문 북쪽에 4개, 광희문 남쪽에 1개가 위치한다.

그러나 문헌기록에는 총 6개의 치성이 건설되었으므로 현재 확인된 5개의 치성 외에 나머지 1개가 추가로 한양도성 구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번째 치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치성의 원형을 고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2.3 치성 건설의 위치기록

앞선 기록을 볼 때 영조는 1752년 12월3일 대신들과의 논의에서 단순히 치성의 설치 개수를 4개에서 5개로 조정할 것 같지만 어영대장과 치성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논의하였다. 영조는 어영대장 홍봉한이 제안한 흥인지문과 광희문 사이 4곳 외에 광희문 남쪽으로 1곳을 별설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의 건의로 흥인지문과 광희문 사이에 5개의 치성을 설치

하도록 결정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752년 영조가 제안했던 치성 설치 위치가 현재 지도(지형도 및 지적원도)와 근대사진(조지로스 및 카를로 로제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sup>17)</sup>

최종적으로 영조는 1753년 2월 3일 치성의 개수를 다시 6개로 늘리도록 하명하였다. 어영대장 홍봉한은 같은 해 2월 30일 영조에게 치성 6곳의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고한다. 당시 공사보고에는 정확하게 치성 6곳이 어디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사의 책임을 맡고 있던 어영대장 홍봉한은 영조가 하명한 치성 설치간격(130보)을 고려하여 자신과 영조의 최초 논의 때(1752년)처럼 흥인지문과 광희문 사이에 4기의 치성과 광희문 남쪽으로 2기의 치성을 설치했을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는 6번째 치성을 제외하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치성 5개의 위치와 일치한다.

### 2.4 치성의 건설을 담당할 어영청

삼군영이 18세기 한양도성 전 구간을 나눠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까지는 주로 도성의 방어를 담당하던 군영이 성곽의 보수 및 관리까지 맡게 되었다.

특히 1745년(영조20년)부터는 삼군영(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이 한양도성 전 구간을 균등하게 분계(分界)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표 2>

표 2. 문헌에 기록된 삼군영 도성관리구간

담당 군영	현재 구간	부(部) / 호수(戶數)	길이 (성첩수)	정명	담당 구간
훈련도감	돈의문-숙정문-동변 무사석	중부 3,835호 북부 4,666호 소계 8,501호	4,850보 (1,514개)	전·좌·중	돈의문-창의문
				우·후	창의문-숙정문
어영청	숙정문-광희문 남촌 집 뒤	중부 5,691호 남부 8,239호 소계 13,930호	5,042.5보 (1,449개)	전·좌	숙정문-혜화문
				중·우	혜화문-흥인지문
				후	흥인지문-광희문
금위영	광희문 남촌 집 뒤-돈의문	서부 12,294호	5,042.5보 (1,542개)	전·좌·중	광희문-송례문
				우	송례문-소의문
				후	소의문-돈의문

\* 영조실록, 어영청등록 49권 영조 23년(1747) 4월21일 기록으로 정리(18세기 삼군영의 한양도성 개축과 각자성석, 논문재인용)

\* 도성 발굴의 기록 I, 2011, 서울역사박물관

17) 광희문 북쪽에 5개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광희문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4개, 남쪽으로 1개가 설치되었다.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치성 건설의 시점이 1753년 2월 25일이므로 삼군영이 한양도성을 분계(1745)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치성 건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영조는 치성 축조를 어영대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명하였으므로 치성의 위치는 어영청의 관리구간 내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치성 6개의 위치를 고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영청의 관리구간을 지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성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기준으로 삼았다. 어영청의 분계구간은 어영청등록과 도성삼군문분계지도(1951), 도성대지도(18세기 중반) 등에 표시되어 있다. 어영청등록 및 승정원일기에는 어영청의 관리구간을 광희문 남촌부터 숙정문으로 기록<sup>18)</sup>하고 있으며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등 옛 지도에는 어영청의 관리구간이 광희문 남쪽 목벽(남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던 어영청의 분영인 남소영(南小營)과 어영창(御營倉)인근까지 설정되어 있다. 문헌에서 제시된 길이(5,042.5보: 1보=1.2m기준)를 산정하면 약 6km로 <그림 2>와 같다.

로 6개의 치성은 흥인지문과 남소영 인근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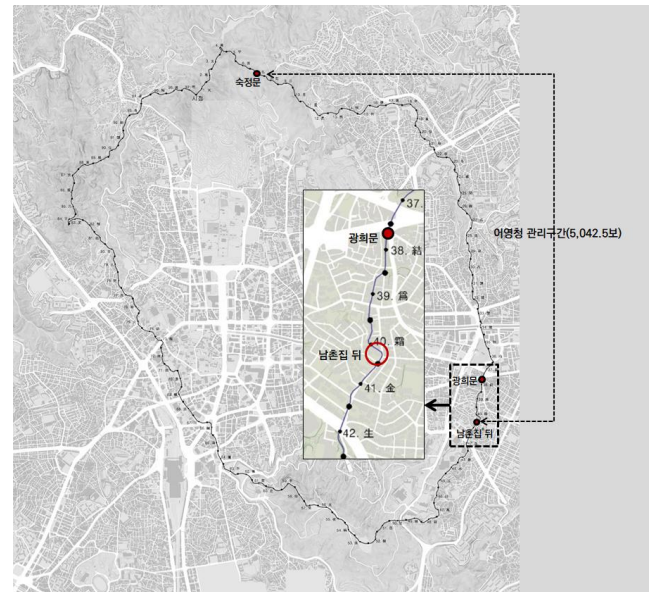


그림 2. 어영청의 관리구간 산정길이

### 3. 치성에 대한 고증

3.1 사진과 지도를 통해 본 6개 치성의 건설 위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치성 위치는 지적원도(1912년, 1929년), 조선지형도집성(1921년)에서 확인<sup>19)</sup>할 수 있다.<그림 3> 그러나 문헌기록에는 6개의 치성 건설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치성의 위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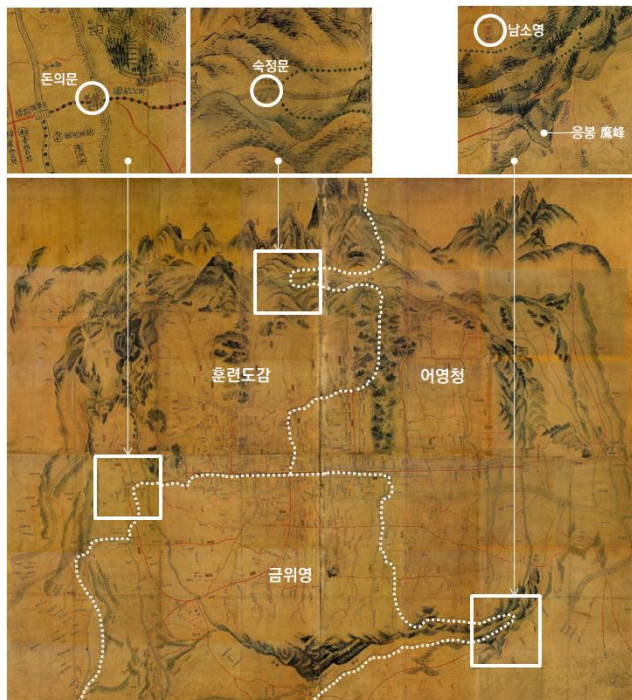


그림 1. 도성대지도(삼군영의 책임구간, 18세기 중기)

옛 지도와 문헌을 통해 어영청의 한양도성 관리구간을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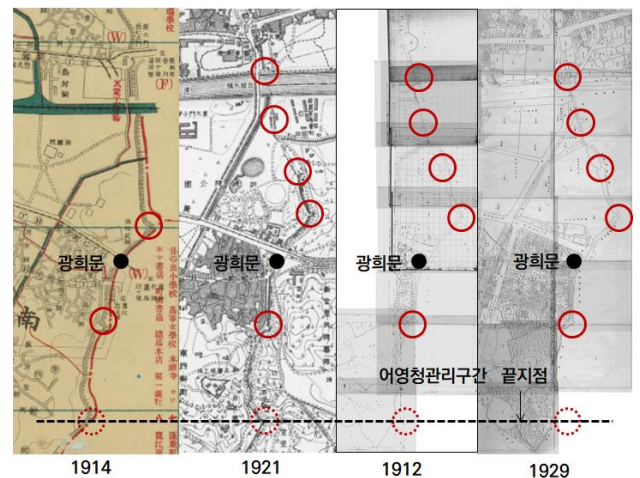


그림 3. 치성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및 지적도 (1914 경성시사가감계도, 1921 지형도집성, 1912/1929 지적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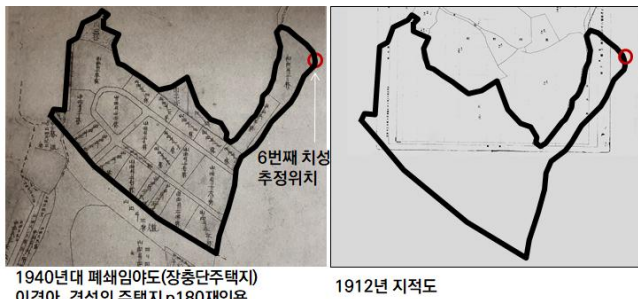
\*빨간원은 치성위치, 점선은 6번째 치성으로 추정

18)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7월 6일 병자 2번째기사. 삼군문의 척량 보수를 별단에 써서 기록하다. 출처: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7월 6일 기사

19) 서울성곽 중장기기본계획 P473, 민덕식(2011)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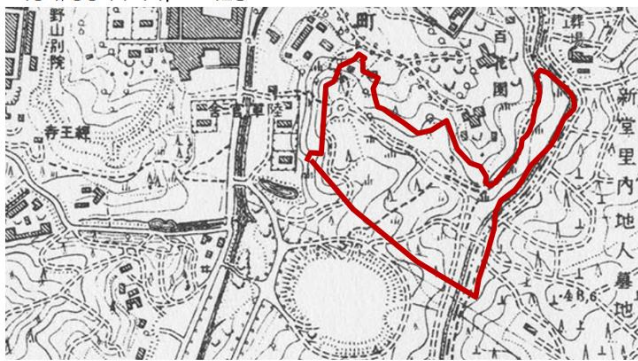
영조는 치성계획의 최종단계(1753년 2월13일)에서 치성간의 거리를 130보로 하명하였는데 이를 현재의 미터로 환산하면 치성간의 거리는 약 156m이다.(1보를 1.2m로 산정기준) 이를 근거로 현재 밝혀진 치성을 등분하여 배치해 보면 5번째 치성은 (구)서산부인과 건물 인근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5번째 치성과 광희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치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5번째 치성은 광희문부터 남쪽으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6번째 치성은 5번째 치성 남쪽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그림 3>에 점선의 붉은 원으로 표시된 곳이 6번째 치성으로 추정<sup>20)</sup>되는 위치이다.

1912년, 1929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에는 5개의 치성만 표시되어 있으며 6번째 치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6번째 치성의 유무를 지적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광희문 남쪽 지역은 1920년대 이후 임야였던 국유지가 민간에 불하되어 주택개발을 위한 대형 필지(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소유)<sup>21)</sup>에 편입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치성의 위치는 완전히 지워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4>는 1940년도 장충단주택지의 경계를 표시한 폐쇄지적도<sup>22)</sup>이다. 1912년 지적원도에는 동쪽의 필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적원도(1912, 1929)에서는 5번째 치성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1940년대 폐쇄임야도(장충단주택지) 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p180재인용

1912년 지적도



1921년 조선지형도집성  
그림 4. 장충단주택지 위치

치성은 20세기 초반 일본의 각종 개발사업(오간수교 건설, 경성운동장 건설, 주택지개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멸실되었다<sup>23)</sup>. 6번째 치성은 장충단주택지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934년 주택지가 개발되면서 한양도성이 훼손되었고 이 시기를 전후로 6번째 치성도 함께 철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치성의 형태와 규모, 축성구법

1760년 수문상친림관역도<그림 5>에 첫 번째 치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1904년 조지로스 사진<그림 6>에서는 치성 4개의 모습을<sup>24)</sup> 확인할 수 있다 치성과 성벽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지만 치성의 형태와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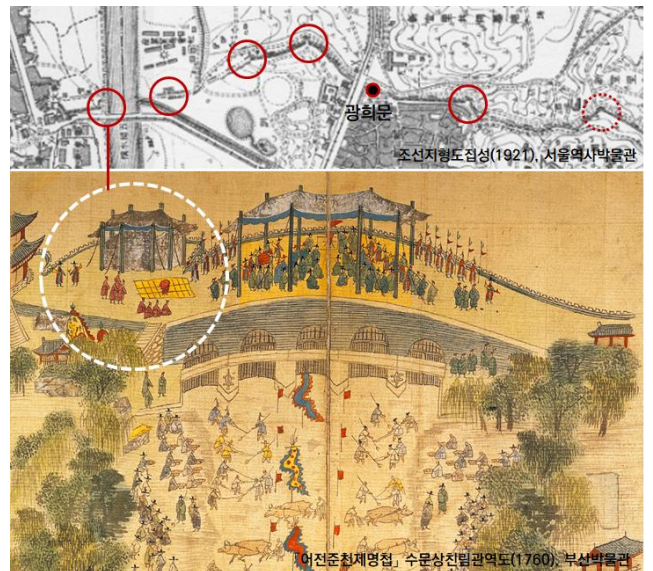


그림 5. 1번째 치성을 표현한 그림

23) 오간수문에 인접해 있던 1번째 치성은 1907년 오간수문이 철거된 뒤 1908년 청계천과 홍인지문 사이의 성벽이 훼손될 때 함께 소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번째 치성은 오간수교가 개설되고 도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철거되었을 것이다. 3번째와 4번째 치성은 1925년 경성운동장의 건립을 전후로 멸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번째 치성은 경성운동장 중앙에 위치하며 4번째 치성은 현재 한양공업고등학교 북쪽 도로상에 위치한다. 따라서 경성운동장의 건립이 이들 치성의 멸실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번째 치성은 현재의 광희문 사적구간 남쪽 끝에 위치한다. 5번째 치성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까지 광희문 밖 신당동일대의 주택지 건설로 인해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에는 문화주택지(소화원 주택지는 1920년대 말 개발, 앵구주택지는 1932~1938년까지 3기에 걸쳐 중류계급 주택지로 개발, 장충단주택지는 1934년 고급주택지로 개발)가 개발되었다.

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2019, pp169-181 집, 2019. 양승우 외, 남소문동천의 역사 및 도시공간변천사 조사, 서울역사박물관, 2018, p189. 김주아, 조선도시경영회사의 주거지 계획과 문화주택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9호, 2008. 오간수문 복원방안 연구, 2006, p62, p70 참조

24) 오간수문 복원방안 연구(2006), 민덕식(2011) 논문에도 조지로스 의 사진을 통해 4개의 치성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20) 6번째 치성의 위치는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를 통해 고증하였다.  
21)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에 의해 개발된 주택지. 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p168  
22) 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p180 재인용

의 형태 및 축성구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6개의 치성이 동시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멸실된 나머지 5개의 치성도 유사한 규모와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자료에 따르면 3번째 치성의 규모는 가로 폭 10.2m, 세로길이 8.3m이었다. 치성의 면석은 약 45~60cm의 정방형의 돌을 사용하여 축성하였다. 이는 치성과 인접하여 발굴된 성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치성의 축성기법을 살펴보면 치성은 내측으로 들어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조시기의 성벽 축성방식은 들어쌓기로 인해 성벽의 기울기는 약 80~85도 이다<sup>25)</sup>. 현재 체성 6단이 들어쌓기 방식으로 복원되어 있다. 치성은 18세기 새롭게 기존의 체성에 덧붙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체성에 덧대어 쌓거나 치성을 건설할 위치의 체성을 해체한 뒤 치성의 면석을 쌓고 내탁부를 관측과 뒤채움하여 기존의 성벽과 견고하게 일체화시키는 방식<sup>26)</sup>으로 건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덕식(2014)은 2009년 발굴된 3번째 치성의 발굴보고서<sup>27)</sup>를 바탕으로 두 번째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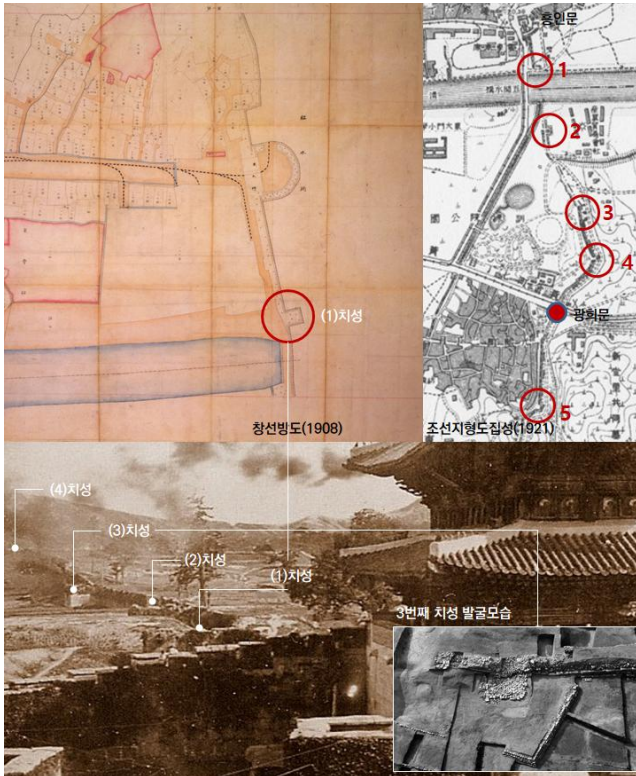


그림 6. 치성모습. 출처: 창선방도(1908), 조선지형도집성(1921), 서울역사박물관/ 조지로스 사진(1904), 호한재단



그림 7. 3번째 치성 발굴모습 및 발굴현황도, 출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서울성곽정비복원공사보고서

한양도성의 6개 치성 중 3번째 치성이 2009년 발굴된 후 복원되었다. 2009년 발굴당시 치성의 하단부와 주위에 성돌이 흩어진 채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치성

3.3 행려풍속도를 통한 6번째 치성의 고증

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수문상친림관역도(1760)와 김홍도의 행려풍속도이다.



그림 8. 김홍도의 행려풍속도

25) 현재 복원된 3번째 치성은 내측으로 약 3도 정도 기울어 있다. 서울성곽정비복원공사보고서, 서울시, 2010, p162

26) 민덕식, 앞의 논문 p39-40

27)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 내 발굴조사, p133

행려풍속도병(1778)은 김홍도가 산천을 유람하며 당시 양반과 서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메박물관 소장 그림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과 구도는 비슷하지만 배경에서 차이를 보이는 그림이 있다.<그림 8> 배경에 한양도성의 치성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수문상천림관역도가 첫 번째 치성을 그린 그림이라면 행려풍속도는 여섯 번째 치성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6번째 치성은 5번째 치성 다음에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현재의 장충동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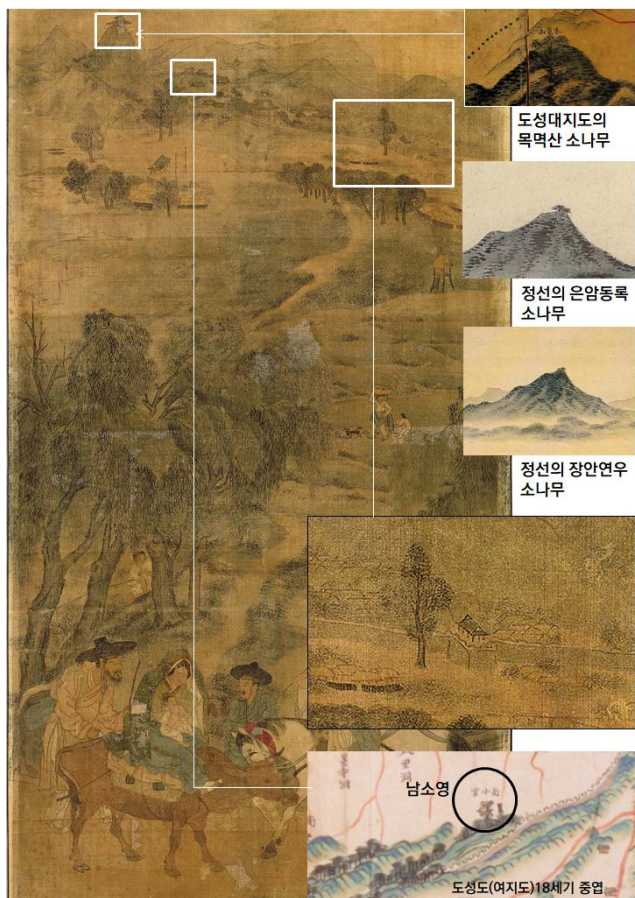


그림 9. 김홍도 행려풍속도(기메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행려풍속도에는 산을 포함한 지형, 성곽 및 성곽시설, 건축물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행려풍속도의 배경을 추정해 보면 원경에 표현되어 있는 산은 목멱산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산의 정상에 소나무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선이 그린 도성 그림(목멱산도, 장안연우, 은암동록)과 도성도(도성대지도)에도 목멱산 정상에 소나무를 그려 목멱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목멱산 동쪽 기슭에

위치했던 남소영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김홍도의 남소영도 및 북일영도<sup>28)</sup><그림10>와 비교해 보면 지붕형태(팔작지붕)와 칸수(정면5칸, 측면1칸)가 유사하다. 또한 행려풍속도에서 홍살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장충동에 위치하고 있던 관성묘<sup>29)</sup>로 판단된다. 관성묘는 관운장을 모신 사당이다.



그림 10. 남소영을 표현한 그림

홍살문은 관우(관왕묘), 제갈공명(와룡묘) 등의 사당<그림10> 앞에도 있는데 행려풍속도에 보여지는 홍살문도 사당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홍살문을 통해 인근에 사당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홍살문(관성묘) 앞에는 어영창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다. 어영창(御營倉)은 어영청이 관리하던 창고로 남소문동천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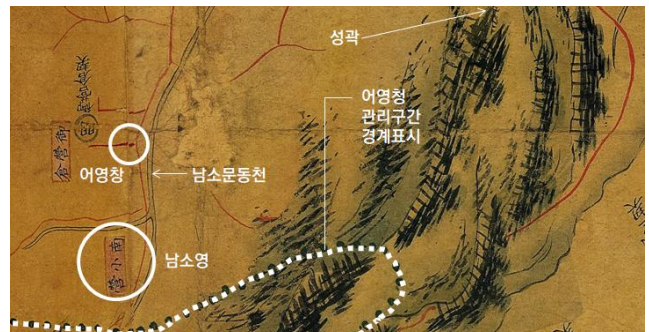


그림 11. 어영창과 남소영의 위치(도성대지도)

28) 북일영도는 남소영도와 건물의 형태 및 배치, 입지가 매우 유사하여 남소영의 모습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

29) 관성묘, 중구 장충동2가,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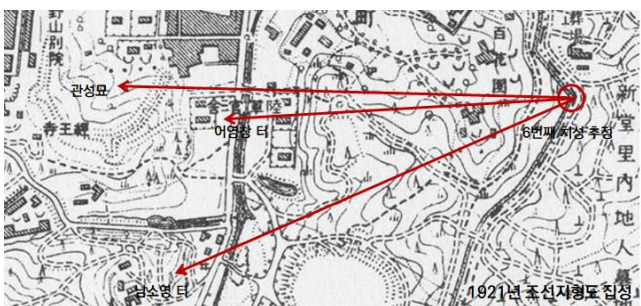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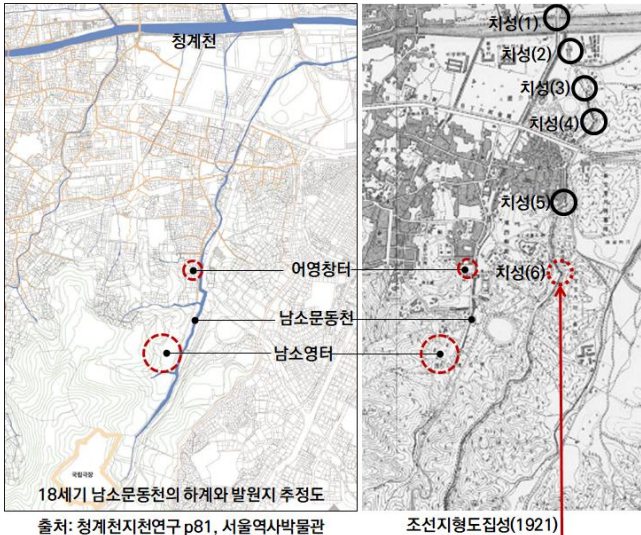


그림 12. 남소문동천변의 건물들과 6번째 치성 추정위치

행려풍속도에도 어영창 전면에 빈 여백이 있는데 이는 남소문동천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2> 현재 남소영터와 어영창터는 장충단로(옛 남소문동천변)에 접해있다. 이처럼 어영창, 남소영, 관성묘로 추정되는 건물의 위치와 행려풍속도의 구도를 분석하여 치성의 위치를 추정하면 6번째 치성은 현재 장충동1가 89-1번지 인근으로 판단된다.<그림14> 이곳은 2016년 시굴을 통해 성곽유적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행려풍속도의 치성위에는 포루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8세기 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인 수문상친림관역도(1760)에는 치성위에 포루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포루(舖樓)는 성곽위에 설치하는 목조누각으로 군사들이 망을 보며 대기하거나 화기를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포루는 입

진왜란 이후 본격적으로 성곽에 설치할 것이 논의 되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기성포(騎城舖)에 관해 묻고 홍봉한이 성위에 세운 소루(小樓)로 포(舖)라고 답하였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sup>30)</sup> 그 외에 영조때 훈련도감에서 수행한 포루공사의 기록도 남아있다.

이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적어도 성벽이나 치성 위에 포루(舖樓)를 설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포루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아서 만약 김홍도의 행려풍속도에서처럼 치성위에 포루가 설치되었다면 이는 18세기 포루가 설치된 치성의 모습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적어도 6번째 치성에는 포루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3. 김홍도 행려풍속도와 구글어스3D 항공사진을 비교

그 밖에 행려풍속도의 그림구도에 맞춰 3D지형도를 배치해 보면 <그림 13>과 같이 남산(목멱)의 능선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멱산과 매봉산 사이로 관악산을 표현해 놓을 것도 행려풍속도의 배경이 목멱산임을 밝혀주는 증거이다.



그림 14 . 6번째 치성의 추정위치 현황(2019)

30) 민택식 앞의 논문 p13, 승정원일기 재인용

## 4. 결론

본 연구는 18세기 한양도성 흥인지문 일대 치성의 건설과 관련하여 치성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 축성구법을 국가기록, 지도, 사진, 그림, 발굴 자료를 통해 고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한양도성에는 새롭게 치성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양도성의 치성은 영조 29년(1753)에 축성되었으며 삼군영 중 어영청이 담당하였다. 관련된 기록이 문헌자료(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 남아있다. 치성의 설치 개수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4개에서 5개로 조정되었다가 최종 6개로 결정(1753년 2월 13일)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공사기록과 달리 실제 치성이 6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고증되지 않았다. 또한 치성의 설치 위치도 문헌기록과 현황이 다르다. 본래는 흥인지문과 광희문 사이에 6개 전체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광희문 북쪽에 4개소 광희문 남쪽에 1개소가 확인된다. 이는 1752년 홍봉한이 처음 광희문 북쪽에 치성 4개소를 설치하기로 영조에게 보고했을 때 영조가 광희문 남쪽으로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둘째, 현재까지 고증된 한양도성의 치성의 개수와 위치는 5개이며 이는 지적원도(1912년, 1929년), 지형도(1921년), 조지로스(190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번째 치성은 지적원도(1912년, 1929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6번째 치성이 필지의 경계가 아닌 대형 필지 내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6번째 치성이 포함된 필지는 당시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소유였음)으로 판단된다. 다른 5개의 치성은 필지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거나 대지가 성(城)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다. 6번째 치성은 장충단주택지에 포함되어 1934년 개발로 멸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한양도성의 치성은 장방형 형태이며 치성의 면적은 약 45~60cm의 정방형 성돌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치성의 축성의 시기(영조시기부터 45cm의 정방형 성돌이 성벽 개축에 부분적으로 쓰이기 시작함) 및 인접하여 발굴된 성돌의 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성의 기울기는 약 80~85도 정도로 추정된다. 영조 당시 들여쌓기 공법이 사용되어 성벽을 내측으로 기울여 쌓았기 때문이다.

넷째, 6번째 치성의 형태와 위치는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를 통해 추정가능하다. 김홍도의 행려풍속도(기메박물관 소장)를 보면 6번째로 추정되는 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745년 이후 삼군영이 분계하여 한양도성을 관리하던 담당 군영(어영청)의 구간, 관청

건물(남소영과 어영창), 지형(목멱산), 기타시설(홍살문 등)을 통해 6번째 치성의 위치를 5번째 치성의 남쪽인 현재의 장충동1가 89-1번지 인근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홍도의 행려풍속도에는 치성 위에 포루가 설치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18세기 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수문상친림관역도(1760), 근대사진(조지로스, 1904), 발굴(2009) 등에서는 포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영조가 성벽에 설치된 포루에 대해 묻는 기록과 포루공사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 일부 치성에는 포루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김홍도가 치성 위에 포루를 그려 놓은 것을 통해 적어도 6번째 치성에는 포루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치성의 원형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 현재까지의 연구 및 발굴성공을 바탕으로 치성의 개수, 위치, 형식 등에 대해 고증하였다. 향후 한양도성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을 통해 치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 및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민덕식, 「새로 발굴된 서울성곽의 부대시설-치성과 이간수문을 중심으로」, 서울역사편찬원, 향토서울 No.78, 2011
2.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보고서, 서울특별시, 2016
3. 도성발굴의 기록 I, II, 서울역사박물관, 2012
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울성곽 정비복원공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10
5.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내 발굴조사, 2009
6. 오간수문 복원방안, 서울특별시, 2006
7. 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2019, 도서출판 집
8. 남소문동천, 서울역사박물관, 2020
9. 문인식, 김영수, 송인호 「18세기 삼군영의 한양도성 개축과 각자성석」, 건축역사연구, Vol29, No6, 2020

史料>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행려풍속도』, 『수문상친림관역도』, 『도성삼군문분계지도』, 『조선지형도집성(1921)』, 『지적원도(1912, 1929)』, 『도성대지도』, 『창선방도』, 『경성시시가지강계도』, 『구글어스』,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

접수(2021. 01. 11)

수정(1차: 2021. 02. 20)

게재확정(2021. 03. 03)